

미래엔과 동아일보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엠티처

www.m-teacher.co.kr

vol.22 | 2018년 8월호

교육 초대석

교육계 주요 인사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들어보며 앞으로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최근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 500여 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자 한국인의 다문화 감수성 부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난민 수용 반대론자들은 “예멘은 이슬람국가이므로 IS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이 테러 위협에 노출된다” “난민 보호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크게 낭비된다” 등의 이유를 내세운다. 물론 자국민의 보호와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난민 수용을 덮어 놓고 반대하는 태도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그리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의식 부족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북한까지 문호를 개방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 학생들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나와 다른 이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 요원하다.

교육현장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커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국제적 흐름과 한국사회 분위기의 ‘엇박자’를 바로 잡고, 공존이 당연시되는 사회를 학생들이 직접 이룩하여 살아가게 하려면 다문화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는 최윤아 인천 동양중 교사로부터 다문화교육 노하우를 묻고 들었다.

최윤아 교사는 교육부가 주최하는 ‘제8회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자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다문화교육 연수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의 '다문화감수성' 함양 위해 힘쓰는 최윤아 인천 동양중 교사

다문화교육? 다문화라는 단어 사라져야 비로소 완성



최윤아 교사는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모든 학생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문화교육은 특별한 교육이 아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최윤아 교사는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모든 학생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문화교육은 특별한 교육이 아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 문화 배우면 끝?

“베트남의 전통음식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전통의상을 알아보시다.” 이처럼 다문화교육은 각국의 전통이나 풍습에 대한 지식을 쌓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히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외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교육’ 내지는 ‘외국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교육’으로 다문화교육을 정의해온 관습 때문.

그러나 최 교사는 “이러한 방식의 다문화교육이 오히려 더 큰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다른 국적·민족의 학생만을 다문화학생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 경계가 선명해진다. 게다가 ‘이들을 한국화(化)시켜야한다’는 식의 접근은 한국이 더 우월하다는 위험한 생각마저 심어줄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차별 때문에 자신이 다문화학생임을 숨기고 싶어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현실.

그렇다면 다문화교육은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까. 먼저 문화라는 개념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화는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집단이 습득해온 행동 양식, 또는 그 과정에서 이룩한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칭한다. 문화의 정의가 이렇다면 다양한 문화를 뜻하는 다문화 역시 국적은 물론 자라온 환경이나 가치관의 차이 등 모든 ‘다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교육은 그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함을 일깨워주는 모든 교육, 즉 △반차별·반편견 △다양성 △평화와 공존 △협력 등을 주제로 하는 모든 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와 다른 국적의 학생만을 다문화인으로 규정지을 필요도, 따라서 특정 국적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할 필요도 없어진다. 개개인은 저마다 서로 다르므로 결국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다문화이기 때문이다. 최 교사는 “30명의 학생이 생활하는 교실에는 총 30명의 다문화인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모든’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미래의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꼽는 국제사회의 시각과도 부합한다. 최 교사는 “다문화교육은 특정 국적의 학생을 대상으로 타국 문화를 알려주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반차별·반편견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이라면서 “역설적이지만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져야 비로소 다문화교육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이 몸소 변화 이끌게 도와야

그렇다면 교육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져야할까. 최 교사가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의 ‘실천’과 ‘성취’다.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이러한 실천을 통해 사회의 변화까지 도모해봐야 성취감을 느끼면서 배운 지식이 내면에 단단하게 자리 잡기 때문.

이를 위해 최 교사는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줄것을 지역사회에 요청하는 ‘건의문 쓰기’ 활동을 진행했다. 건의의 대상이 하필이면 지역사회인 데는 이유가 있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또 그로써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범위가 지역사회까지기 때문이다. 최 교사는 “목표가 너무 원대하면 오히려 와 닿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 개개인의 가치관이 단단하게 형성되는 중

학 시기에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내용은 오래 남지 않기 때문. 실제로 이 수업에 참여해 지역의 한 식당에 다양한 언어로 된 메뉴판을 게시해줄 것을 요청했던 학생들은 ‘외국인이라면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보기 불편할 것이다’라는 문제점 파악부터 ‘그렇다면 다양한 언어로 된 메뉴판을 만들자’는 해결방안 도출, 나아가 ‘이 메뉴판을 사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 의문 작성’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수행했다.

“학생들이 배운 것을 직접 실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당장은 작은 변화만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런 성취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 더 크고 중요한 변화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최 교사)

작은 관심 가지면 교육자원도 풍성

다문화교육이 교육현장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교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최 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관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원도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다문화교육 연수가 있다. 최 교사는 “연수에서 다문화교육의 의미만 제대로 정리해도 다문화교육을 훨씬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교사들의 작은 관심,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가 곧 다문화교육이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계기”라고 말했다.

학교 밖에도 교육자원은 풍성하다. 일례로 다문화가족지원 포털인 ‘다누리’와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전문 강사들을 무료로 지원해준다. 우수 수업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최 교사는 “최근 동양중에서는 전교생이 다함께 다문화 벽화를 만들었는데, 여러 교사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더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다문화교육이 특정 학년·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